

[바둑]

세계 '바둑 올림픽' 닷 올랐다

최초로 열리는 제1회 세계 마인드스포츠대회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일본에 이어 대만이 최근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발표하는 등 참가국들이 선수단 구성을 모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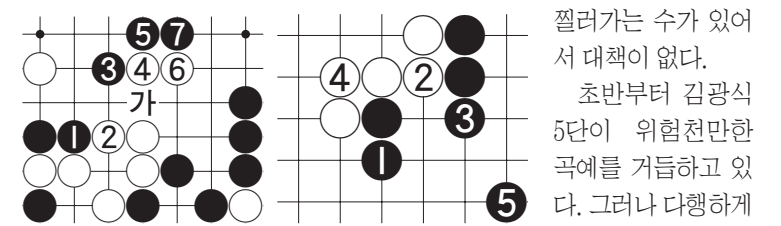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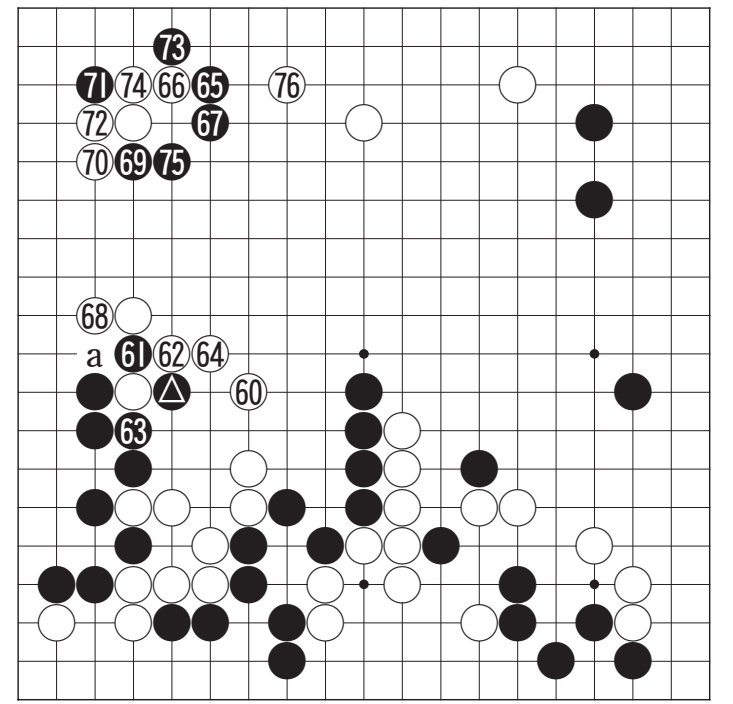
대만은 아직 종목별 출전 선수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위원회 최근 국내 랭킹 2위인 이창호 9단만 제외된 국내 랭킹 최상위권 프로기사 21명과 아마추어 4명 등 총 25명(남자 16·여자 9)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일본 이어 대만도 선수단 구성 마쳐 한국팀, 이창호 제외 정예멤버 25명 발표 中, 창하오 등 총동원 금메달 싸움이 도전

을 획득했다. 개최국 중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마인드스포츠 분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위기 뒤의 찬스 4회전 1국 5보 (60~76) 白 김광식 5단 黑 박광주 5단 ((주)송림) (포스코)



박광주 5단은 뒤늦게 흑 ▲로 공격해 왔는데 이수도 급소를 벗어난 수로 백을 편하게 도망가게 해주고 만다.

"내일은 바둑왕" 세계어린이 국수전



세계의 바둑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8회 대한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열렸다.

'금강산 피격 사건' 바둑계에도 불똥

10월 예정 바둑리그 '금강산 투어' 불투명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의 여파가 바둑계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10월로 예정된 KB국민은행 2008한국 바둑리그 금강산투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기원 측과 선수들의 일정까지 조정을 끝냈다. 그동안 금강산에서는 2005년 국수전 도전 5년기 제3국이 금강산에서 벌어졌지만 당시에는 인터넷 중계만 있었을 뿐 TV 중계는 없었다.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28일 막 올라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통합예선전이 28일부터 8월2일까지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주최국인 한국에서 196명이 출전하고, 중국 51명, 일본 47명, 대만 19명, 아마추어 6명 등 모두 319명(남자 268명, 여자 51명)이 참가한다.

한·유창혁·창하오 9단)과 국가시드로 한국 3명(목진석·조한승·박정상 9단), 중국 2명(리저 6단, 저우루이양 5단), 일본 2명(미즈, 와이드카드 1명)에게 주어진다.

내달 1일 한국기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공개

한국기원의 공식 영문 홈페이지(english.baduk.or.kr)가 8월1일 공개된다. 영문 홈페이지는 한국 바둑의 역사 등이 소개되고 국내 바둑계의 실시간 소식 등을 제공하게 된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yung Real Estate, featuring model villas and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won Real Estate, highlighting a 3-story integrated house and other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il Real Estate, offer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eomwon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eomwon Real Estate, providing a detailed list of properties with prices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eomwo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perties.